

**금주법구**  
일년 열두 달 하루도 쉬임없이  
일하면 공양하고 쉬는 날은 먹지 마세.  
절간에 노비 두고 부유함 찾는 것은  
술가한 사문의 뜻 정녕코 아니라네.  
-백장청규 주지장5-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불교 생태학교' 10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문스님)이 1991년부터 일반 시민을 위해 개설한 환경경관 '생태학교'가 4월로 20회를 맞아 졸업생 1천여명을 배출했다.

10년 동안 졸업생들의 생태 운동모임인 '초록비람'을 결성하기도 하고, 출중한 환경전문 활동가를 배출하기도 한 생태학교는 불교환경운동의 모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과 환경운동가들에게 불교의 환경사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생태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생명학교, 전문가를 위한 생명운동아카데미, 종교 환경지도사 워크숍 등 불교환경교육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불교계는 물론 국내 환경단체에도 신선한 이념적 자극을 주었다.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강의내용은 독보적이어서, 국내 환경단체 간사들치고 불교환경교육원을 거쳐가지 않은 이가 드물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의 귀농학교 프로그램 등 일반 환경단체의 강좌가 불교환경교육원의 프로그램을 거울삼아 만들어질 정도다.

하지만 1988년 3월 불교환경교육원의 모태인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이 태동할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불교에도 환경·생태 사상이 있는냐는 식이었다.

1994년 6월 환경부로부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환경운동에 나선 불교환경교육원은 불교 생명사상의 체계화와 사회화를 위해 심



학을 기울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관련 대외연대사업과 연구조사사업을 병행하면서도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전체에야 한다는 생각에 일반 성인과 종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개해 온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원이 불교생명운동의 든든한 짝을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환경의 보존이나 원상복구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아상(我相)에 빠져 자신만의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과보(因果)에,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은 수행과 참회를 통해 가능하다"는 법문스님의 말처럼, 생태 위기시대에 환경운동의 이념과 부합되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더욱 확산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02587-8997 김재경(취재 1부 기자)

## '1인 1장기 기증운동' 전개

### 생명나눔실천회 12일 전진대회

불교계의 장기기증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된다.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문스님은 창립 7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6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민 1인 1장기기증' 운동을 선포한다.

"전국민 1인 1장기기증" 운동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일반에 인식시키는 물론 생명나눔운동이 전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동으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해에만도 장기기증 신청자가 7천명이 넘어서면서 창립 당시인 94년과 비교해 1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급 스님 및 장군계 유력 인사와 대법원 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30개 교계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20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참여 인사들에게 행사장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 운동의 첫발을 내딛는다.

또 이같은 의미를 교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최근 결성된 대학생 생명나눔 동아리 'Life share'의 남 녀 대표학생이 '전국민 1인 1장기기증'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한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원들로부터 장기기증 서약서를 전달받는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에 앞서 8일 수석사에서 한국은전기사불자연합



다시 오신 성철 스님 '성철 대종사 생가 복원 및 고택과 사당 창건 회향 법회'가 3월 30일 경남 신성 목곡리에서 법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이회장 한나리당 총재, 김중권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관련기사 22면) 신상=고영배 기자

### 남북종교인 교차방문 가능성

#### KCRP-조선 종교인협회 합의문 채택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KCRN)는 3월 27-28일 금강산 금강원에서 남북종교인평화모임을 갖고 공동합의문과 일련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의 종교대표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남북의 종교대표들을 참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KCRP와 KCRN은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종교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합리화하려

는 일본의 신제국주의의 파렴치한 역사 날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일본에 대해 △사죄와 보상 △역사 왜곡 행위의 즉각 중단 △동북아 평화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모임에 남북에서는 최창규 KCRP 회장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신스님을 비롯 30여명, 북측에서는 KCRN 장재원 회장,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 등 8명,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이장옥 공동의장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괄  
대불, 소불, 불단, 탱화, 단청, 담집  
02-725-2030/725-2040

###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 스님

#### 총회의장에 윤곡 스님

태고종은 3월 28일 순천 선암사에서 재직 총회의원 47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혜초스님(서울 법문사 주지)을 제21대 총무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인터뷰 3면)

총회는 이어 총무원 부원장에 대한 스님(전 봉원사 주지)을 선출하고 나머지 한명의 부원장은 차기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20대 총무원장 법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직무대행 일운스님의 총무행정 집행에



△혜초스님 △윤곡스님  
대해 추진했다.  
또한 총회는 총회의장 남파스님이 종단연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중앙포교원장 윤곡스님을 새 총회의장으로, 우담스님과 윤경스님을 총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순천=이경숙 기자

### 지리산 댐 사실상 백지화

#### 종교·환경단체 "결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지리산 댐현상 문정당, 신성 덕연강댐 건설이 지역 주민과 종교·환경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

댐 공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간부는 3월 26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공사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지리산댐을 건설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역시 "계획이 당초에 없었으니까, 한다 안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 자체를 부인했다. 정부는 초간단 지리산 댐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인대표 수경스님은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오기까지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gkim@buddhania.com)

### 지역불교 문화기행

#### 남도 천년고찰의 봄내음

#### 승광사·선암사·흥국사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조계산의 승광사와 선암사는 연봉(連峰)을 뚫고, 개나리 등 봄꽃들로 꽃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에는 봄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남도의 천년고찰을 찾아갑시다.

승보통찰 승광사에서는 면면히 내려온 16조사 스님들의 기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경내 입구 원원에 자리잡고 있는 성보박물관에서는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과 고려 고종제서국보 제43호) 등 진귀한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국사가 중창한 역사 깊은 대가람 선암사에서는 반월형의 무지개 다리 승선교보물 400호(보물)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온갖 번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성보박물관 역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빛나무슬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흥국사를 함께합니다.



△선암사대웅전

◇출발: 4월 2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마2일  
◇회비: 5만5천원(식사·종교용품)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회)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 장·군·죽·비

- ◇전주시 불자들의 모임 '천천클럽', 새로운 급심 법적 만들다. 1천명 x 1천원=100. 불국토 가꾸기, 작은 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면)
- ◇아마도,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산은 산 바다는 바다'. (8면)
- ◇조선불교, 왜 승유역불 500년으로만 기억하는가! 그 암흑의 시간에도 도인들은 如何했는가. (9면)
- ◇한국JTS 북한에 농업기술 지원키로. 진정한 자비는 한 끼 밥그릇을 채워주는 일이다. 스스로 세 뿌리는 능력을 주는 일. (29면)

#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